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전망: 인사와 정책을 중심으로

Online Series CO 11-10

전 현 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가 오는 4월 7일에 개최된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회의 개최를 결정하였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4월 5일과 6일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년의 예를 비추어 봤을 때 금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① 2010년도 예산 및 결산, ② 2011년도 예산 확정, ③ 조직 및 인사 문제, ④ 경제관련 정책 방향 등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관심 대상은 역시 조직 및 인사 문제와 경제관련 정책 방향이다. 첫째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6월에 개최된 제12기 3차 회의 때 내각 총리에 최영림이 임명되었고,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회의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일부 당·정·군 관료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 변동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즉,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제1부위원장으로 보임될 것인가가 관전의 포인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이러한 큰 직책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왕지스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

장은 2월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도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2009년부터 서서히 회복된 김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현지도도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속도는 약간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 다만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김정은이 경제 분야에서 일정정도 가시적인 치적을 보인다면 2012년에는 현재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지위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3월 16일 단행된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의 낙마와 그 후임문제이다. 주상성 부장의 낙마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발표한 ‘신병문제’외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주상성 부장이 2월 16일까지 건재하다가 갑자기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2004년 7월 당시 인민보안상이었던 최룡수가 1년 만에 해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주 부장은 78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금년들어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작업이 강도 높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과로로 쓰러졌을 수도 있다. 다만 그가 만일 금번 제12기 4차 회의 시 국방위원에서 탈락한다면 단순한 건강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둘째로 경제관련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외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법령제정과 경제특구 지정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최대의 국정과제로 인민경제생활 향상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각종 개혁조치들이 실패를 거듭함에 따라 그것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후계체제가 급속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의 공고화를 위해서라도 인민경제 상황이 빠른 시일내에 향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김정은의 치적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대외개방이고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김정은은 현재 자력갱생 차원의 치적인 CNC를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진과학사상’을 정교화 시키고 있지만 이것 역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의 자본을 흡입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도입하고 이후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이를 확고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강성대국 건설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김정은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일 것이다. 대남 관계와 관련한 획기적인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가 주목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최고인민회의의 1차 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4차 회의에서도 유의미한 결정들이 있었다.

〈표〉 최근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 주요 내용

기 수	차 수	일 시	내 용
제7기	4차	1985.4.9	남북국회회담 제의
제9기	4차	1992.12.11	총리 교체 (연형묵→강성산)
제10기	4차	2001.4.5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승인
제11기	4차	2006.4.11	과학기술발전 전략 채택
제12기	4차	2011.4.7	?